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 742호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4층
☎ 02) 3482-0999 / F: 02) 3482-8835 / ekara.org / info@ekara.org

문서 번호 : 1511-다A-07호
발신 일자 : 2015년 11월 20일
수 신 : 이웅종강아지테마파크 (대표: 강석창),
FAX. 031 961 6453, somangdog@gmail.com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 목 : <이웅종 강아지 테마파크>에 대한 카라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2002년 시작되어, 동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입양확산과 유기근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서부터, 비인도적으로 동물을 착취하는 식육산업, 모피산업, 동물실험, 동물이용 전시·공연·시합, 야생동물 위협 등에 저항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카라는 '이웅종강아지테마파크(이하: 이웅종 파크)'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상기 시설을 방문하여 동물권 증진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웅종 파크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드리오니 경청하여 주시고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대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세계 여러 종의 개들의 견학 시설을 표방하는 '개'들의 시설과 관리 상황

1) 홍보물에 따르면 이웅종 파크는 개를 키우고 싶어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세계 여러 종의 개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으로 보이며, 사람들이 동물을 직접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2) 개는 오래 전부터 인간과 반려 관계를 맺어왔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이웅종 파크에는 '세계 속 강아지'라고 지칭되는 구역에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있었습니다. 약 30마리의 개들이 6~7개 정도의 널찍한 사육 공간에 나뉘어 머무르고 있었는데 각 공간에 적게는 3마리에서 많게는

6마리 정도의 개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개의 접촉은 울타리 친 사육공간 내에서 이뤄졌는데 각 사육공간에는 안내인이 배치되어 있었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2층문을 지나야 공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각 사육공간 바닥은 흙으로 덮여 있었으며,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격리된 작은 공간이 곳곳에 있었고, 개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에 있어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 듯했습니다.

개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활기찼으나, 피부 상태가 안좋은 개들이 1~2마리 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성화 수술 비율은 낮은 듯 했지만 반려견 판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오랜 기간 인간의 반려동물이었던 개들의 사육 및 환경, 사람들과의 접촉 등에 있어 상기 시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 이용중 파크에서 소위 '특별한 반려동물'로 소개되고 있는 나머지 동물들 관리 상황

3) 하지만 이용중 파크에는 개뿐만 아니라 왈라비, 설가타 육지거북, 사막여우, 코아티 너구리, 라쿤, 프레리도그, 스킵크, 고슴도치, 팻테일저빌,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염소, 양 등 야생동물과 농장동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홍보물에 '특별한 반려동물'이라고 분류되어 있으며 '강아지 외에도 다양하고 특별한 반려동물을 만나보세요'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슴도치, 팻테일저빌,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염소, 양 등 일부 동물들은 사람들이 상시로 직접 접촉할 수 있었고, 라쿤과 같은 동물들도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 이용중 파크의 시설 중 '아이스존(ice zone) 미니 동물원'이라 지칭되는 실내 구역은 아이스링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온도가 매우 낮고 소음이 심했습니다. 홍보물에 아이스존 미니동물원은 '18℃ 언제나 시원해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가타 육지거북, 사막여우, 코아티 너구리, 라쿤, 프레리도그, 스킵크 등은 아이스존 미니 동물원에서 전사·사육되고 있었는데 사육공간에 보온등이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춥고, 좁고, 단조롭고, 딱딱하고,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동물들의 움직임은 둔했고 동물들은 몸을 지속적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스링크와 붙어 있는 환경적 조건 자체부터 동물의 사육공간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았고, 실외 구역에 있던 왈라비를 포함하여 각 동물들의 습성을 존중한 환경 구성이 근본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설가타 육지거북과 사막여우는 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분류되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물'이라는 뜻인 만큼 사람들과 친숙해지기보다는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보호되어야 하는 종입니다.

5) 뿐만 아니라 아이스존 미니 동물원에는 고슴도치, 팻테일저빌,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등도 체험·전시·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등은 반려동물로서 이미 대중화되기는 하였으나 아무리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사람과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은 각각의 동물이 가진 특성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등은 반려 관계에 있는 특정인과의 지속적인 유대가 필수적인 동물들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단순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용종 파크에서 춥고 시끄러운 곳에 최소한의 격리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누구나 이 동물들에게 손댈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사육공간 내에서 번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개체 수 증식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6) 한편 실외 '열린 동물원'이라 지칭되는 구역에서는 염소와 양을 상시로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농장동물들로서 개와는 달리 여러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또한 나이 어린 입장객들이 빨 등 동물의 예민한 신체 부위를 자극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 이용종 파크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현재 이용종 파크에서 개를 제외한 동물들의 전시 이유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물들을 대상화하여 구경 거리나 오락 거리로 취급하는 잘못된 기존 체험 동물원과 비슷한 행태를 답습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장소라는 '강아지 테마파크' 본래의 설립 취지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시설에서 동물원의 존재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야생동물을 '특별한 반려동물'이라고 소개하는 것, '기르기 어렵다/쉽다' 등의 동물 소개 팻말, 기타 사람들에게 동물을 체험시키는 방식과 태도 등에서 드러납니다.

야생동물은 국제멸종위기종 여부를 떠나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단순 흥미의 대상, 특이한 것에 대한 소유욕, 수익 창출 수단 등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가 야생동물 밀수 및 밀거래를 심화시키고, 무분별한 번식과 거래, 동물유기 및 동물학대 문제를 확산시켜 온 점을 직시하고 반려동물 범위 확대에 대해 재고해야 합니다.

개라는 인류 공통의 반려동물을 체험하게 하는 이용종 파크가 흥미와 수익 위주의 오락시설이 아니라 동물과의 반려관계를 성숙시키는 견학의 장소로서 기능하려면 첫째, '강아지 테마파크'라는 이름에 맞지 않고 반

려동물이라 할 수 없는 동물들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수용하고 있는 동물원의 철수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반려동물에 대한 단순 체험에서 나아가 어린이와 학생들, 아직 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동물과의 유대관계 형성의 좋은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하고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라. 결론과 요청사항

현재 이용종 파크는 '강아지 테마파크'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고유한 반려동물이라 할 수 있는 개들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책임자가 반려동물 '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그간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물과의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일조하는 단순 체험 이상의 교육적인 부분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보장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반려동물로 소개되고 있는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부족함이 보였으며 동물의 상태, 사육환경, 사람들이 동물을 체험하는 방식 모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를 제외한 동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사육환경, 전시·체험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 반려동물의 범주를 야생동물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용종 파크에서 동물원은 부분적인 문제 개선으로 해결하기보다 동물원 자체의 철수가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